

研究論文

이한직의 시의식 연구*

강 영 미**

I. 서론	V. 결론
II. 일본어 학습과 조선어로 시쓰기	<참고문헌>
III. '운실' 속의 시쓰기와 자아 보존	<국문요약>
IV. 상처 받은 삶에 대한 성찰과 부정적 주제	

I. 서론

식민지 시기, 자의든 타의든 생존을 위해서든 이념을 위해서든 친일의 길로 들어선 몇몇 문인들을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 조선어를 익혀 시 쓰기에 들어선 이한직의 행보는 특이해 보인다. 그는 1939년 《문장》으로 등단한 이후에도 당대의 내로라하는 모더니즘 계열의 대표 시인인 김기림과 이상의 작품 경향을 비판했고 1950년대에 조향, 박인환, 김경린¹⁾이 모여 결성한 「후반기」에도 거리를 두었다.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²⁾은 예술가라면 누구나 모더니스트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이한직은 독자적으로 시를 써 왔다. 창작 과정에서 유과 활동은 지양했으나 해방 후에는 《문학예술》(1954)에서 활동하면서 신경림 등의 시인을 배출하였고, 1957년에는 한국시인협회가 창립되는 과정에 적극적

* 정성 들어 꼼꼼하게 논문을 읽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한국현대시 전공(adomo69@hanmail.net).

1) 신경림, 「청춘과 허무의 시인 이한직」, 《우리교육》, 1996.10, 99쪽.

으로 참여하여 남한 시단의 형성 과정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문학사의 평가는 인색한 편이다.

이한직에 대한 첫 연구는 유고시집이 발간되던 197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 이형기는 이한직의 호가 릴아당³⁾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한직이 지닌 귀족주의적 경향과 그 귀족성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근대적 사회의 비극성을 밝히고 이를 병든 퇴폐의 모더니즘으로 규정하였다. 김우창⁴⁾은 이한직의 대표시를 분석하여, 그의 시에 서정적 모더니즘, 객관화된 비유, 현대적 서정이 장식적⁵⁾이고 표피적인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실의 재현과 분석으로 나가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창작의 능력과 감수성이 근본적으로 좁게 정의된 자아의 장식물일 뿐, 자아의 참다운 진실과 사회적 역사적 진실에 이르는 도구가 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한직이 자아의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계기는 밝히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이후 1980~90년대에는 《문장》지와의 관련성 속에서 접근한⁶⁾ 연구가 발표되었으나 이는 《문장》에 수록된 이한직의 시 7편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작품 전체를 살피지 않은 아쉬움을 남긴다.

이한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2000년대에 이루어진다. 김경수⁶⁾는 이한직의 미 발표 시를 발굴하여 작품 전체를 연도별로 정리하였으며, 시론과 번역문의 특성까지 두루 살핌으로써 이한직이 해방 전후를 비롯한 1950~60대 문단의 연속성을 깨

2) 19세기 프랑스 상징파 작가 빌리에 드 릴아당(Jean Marie Mathias Philippe Auguste de Villiers de L'Isle-Adam(1838.11~1889.8))의 이름을 한자로 음역하여 율아당(樸雅堂)이라는 아호를 지었다는 김종길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형기는 이한직의 호에서 세속적인 타협을 거부하는 정신적 귀족주의적 경향을 읽어내고 있다. 이형기, 「이한직 연구」, 『논문집』, 7집(부산산업대, 1986), 253~254쪽.

3) 김우창, 「서정적 모더니즘의 경과」, 『지상의 척도』(서울: 민음사, 1977), 227~242쪽.

4) 장식성에 대해서는 김준수도 몇몇 작품을 통해 언급한 바 있다. 김준수, 「황해, 또는 마드리드의 창부」, 『한국문학』, 43호(1977.5), 204~311쪽.

5) 이승원, 「<문장>지에 나타난 고향 의식 시고」, 『국어교육』, 36호(한국어교육학회, 1980), 159~174쪽; 김이상, 「<문장>지의 시 연구(1)」, 『어문학교육』, 5집(한국어문교육학회, 1982), 43~79쪽; 김용직, 「<문장>과 문장파의 의식 성향 고찰」, 『선정어문』, 23집(서울대 국어교육과, 1995), 731~751쪽; 이명찬, 「1940년 전후의 시정신」, 『한성어문학』, 18(한성대한국어문학부, 1999), 61~77쪽. 위의 논문들은 이병기, 이태준, 정지용 등을 중심으로 《문장》을 연구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문장》에 작품을 게재한 시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작품을 살피고 있다.

6) 김경수, 「격변기 정체성 탐구의 시적 여정: 이한직론」, 『시학과 언어학』, 5(2003.6), 255~310쪽.

운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김경수가 누락한 이한직의 작품은 이후 권성희⁷⁾에 의해 보완된다. 권성희는 이한직이 쓴 글과 번역한 책, 문단의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재정리하여 이한직의 시를 31편으로 확정지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한직의 전 작품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살피고 있으나, 작품들 간의 시기적 변모 양상이나 논리적 관계 그리고 이한직의 전기적 삶과 작품의 유기적 연관성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있다. 강영미⁸⁾는 이한직의 작품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적 연구를 통해 이한직 시의 변모 양상을 꼼꼼하게 살폈으나, 시 텍스트 차원에서만 분석을 했기에 이한직의 개인적 삶이 그의 시쓰기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앞으로의 연구는 이한직이 《문장》에 발표한 작품뿐만 아니라 그 후에 창작한 작품까지 포함하여, 식민지와 해방, 전쟁, 5·16 등의 격변기를 살며 변화한 시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작품이란 “감지할 수 없는 전혀 사적인 내적 체험에 대한, 감지할 수 있는 투사물”⁹⁾이기 때문에 이한직이 창작한 작품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면 그의 시에 나타나는 귀족적 성향, 유랑의식, 죽음 지향이 나타나는 맥락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그 모습이 소극적이고 나약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자신과 가계와 조상 그리고 시대의 거짓과 손쉽게 타협하지 않으려는 부정정신의 소산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식민지 시대 친일 관료의 아들로 태어나 이처럼 견결한 내면을 표출한 시인은 드물기 때문이다.

II. 일본어 학습과 조선어로 시 쓰기

식민지 시대, 총독부의 국장직에 임했던 조선인은 단 두 명이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한직의 아버지 이진호였다. 이진호(李軫鎬, 1867~1946, 호는 星齋, 창씨명은 李家軫鎬)는 구한말부터 식민지 시기 내내 관계와 교육계, 사교계를 넘나들며 요직에 있는 일본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친일 행적을 하여, 1924년에는 조선총독부의 학무국장에게까지 올랐다. 그는 총독부 학무국장으로서 재임할 당시, 아들을 조선

7) 권성희, 「이한직 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4).

8) 강영미, 「이한직론: 현실인식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43호(2005.12), 45~76쪽.

9) 레온 에델김윤식(옮김), 『작가론』(삼영사, 1983), 141쪽.

인 고등보통학교보다 시설이 좋은 공립심상소학교에 보내기 위해 경성부청에 별도의 기부금을 냈다.¹⁰⁾ 그 결과 이한직은 일본인들만 다니던 남산심상소학교¹¹⁾에 입학하여 지도자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둔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조선인으로서는 드물게 일본인들과 함께 일본어로 된 제도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된 것이다.

이한직(1921~1976)¹²⁾이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 교육을 받을 당시 국어는 일본어였고 조선어는 수의과목으로 전락한 상태였다. 조선인들이 다니던 학교에서도 교수 용어는 조선어가 아닌 일본어였다.¹³⁾ 특이한 점은 제도 교육을 통해 일본어를 배운 이한직이 조선어로 시를 써서 《문장》에 투고한 점이다. 당시 《문장》은 조선어 문학의 보루 역할을 한 민족적 성향의 잡지였다.

幼稚園에서부터 大學에 이르기까지 日本人學校에 다니게 된 선생은 자기 스스로 慈堂으로부터, 혹은 행랑 아범으로부터 朝鮮語를 배워 한글을 마스터했다고 들었습니다. 日本語 일색이었던 그런 환경 속에서도 囑目할만한 朝鮮語 詩人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言語感覺이 얼마나 뛰어나고 있었는가를 말해

10) 이진호는 아들 이한직을 공립심상소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경성부청에 120원을 기부하여 교육 기본재산법에 편입시켜 무리를 받은 바 있다. 이명화, 「이진호: 일제 식민통치에 앞장선 친일관료의 전형」, 반민족문제연구소 편, 『친일파 99인(1)』(서울: 돌베개, 1993), 206쪽.

11) 당시 조선에 상주하던 일본인들은 거대 자본으로 남대문 시장 주변의 상권을 독차지했다. 이들은 스스로 각출을 해서 학교를 짓고 일본에서 교사를 불러들였다. 1907년 경성박람회 개최한 건물을 구입하여 학교를 창립하고, 그곳에 세운 가건물에 여학교(경성거류민단립 제2고등소학교)와 유치원(경자기념 유치원)과 소학교(경성거류민단립 제2심상소학교)를 들었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되면서 일본인 전용학교로 우대되고, 1924년 3월 일본인 초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다.

12) 이한직은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에서 이진호의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용강군 아현리는 대대로 서울의 중인 출신들이 살던 동네였다.

13) 국어를 일본어로 하고, 조선어를 제외한 모든 교과와 교수 용어를 일본어로 정한 것은 조선총독부의 1차 조선교육령(1911.8)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한직이 학교를 다니던 1929년 무렵에는 일본어 상용은 자리를 잡은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에는 조선어를 수의과목으로 변경[3차 조선교육령(1932.3.4)]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학제를 개편하여 종전의 보통학교를 소학교로 개칭한다. 당시 일제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공학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양자의 언어, 풍속, 습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 명칭 계통에 차이를 두었다. 일본어를 상용하는 학교는 ‘소학교—중학교/고등보통학교’로, 일본어를 상용하지 않은 학교는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의 명칭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서도 이한직이 다닌 남산심상소학교에서 일본어를 상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해영(외),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I): 일제 시대의 학교 교육』(한국교육개발원, 1997).

주고 있습니다.…(중략)…저는 또 日本人이면서 日本語까지도 선생께 배웠던 것입니다. 언젠가 朝鮮의 小説을 日語로 번역해서 添削을 청했을 때 선생은 일상의 談笑時와는 전혀 다른 態度로 一字一句 정성스럽게 原文과 對照하면서 「여기는 이런 譯語가 적절하지 않을까요」라고 하나하나 指摘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日本語는 市井俗事에 휩쓸리어 지낸 제가 어느듯 잊어버려가고 있던 것이었으며 그때 저는 새로이 日本語를 배우는 듯한 느낌이었읍니다.¹⁴⁾

『이한직 시집』의 발문을 보면, 이한직이 어머님과 행랑아범에게서 조선어를 배웠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는 어머니가 상징하는 집안에서 개인적으로 조선어를 익히며 시를 쓰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조선어를 익힘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매체를 마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가 상징하는 현실 세계에 안주할 수도 없고, 아버지가 마련한 물질 토대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던 이한직은 외계와는 다른 가상의 세계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정하고 싶은 외부 세계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매개이자 외부세계에서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하는 매체로서의 가상의 세계가 필요했던 것이다. 실제 현실에는 없으나 자신이 소망하는 진정한 세계의 상이 어떤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가상의 세계로서 이한직은 시쓰기를 선택한 것이다. 그가 집안에서 어머니와 행랑아범의 도움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익힌 조선어를 배운 것, 조선어를 통해 시쓰기를 해온 것, 《문장》으로 등단할 당시 “의와 예를 틀리지 마시오”¹⁵⁾라는 정지용의 지적을 받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한직은 학교의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조선어를 학습하지 못했기에 조사 사용에서 미세한 오류가 나타났던 것이다. 그런 오류를 범하면서도 이한직은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 조선어로 시쓰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일본인보다도 더 일본어의 쓰임과 용법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로는 단 한 편의 시도 쓰지 않았다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한직이 오로지 조선어만으로 시를 썼다는 것은 일제로 상징되는 식민지 현실, 아버지로 상징되는 현실 세계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다. 그에게 일본어는 일제의 통치 논리, 아버지로 상징되는 현실원리, 거스를 수 없는 외부 세계를 뜻하고 조선어는 식민지 현실에 대한 거리두기, 어머니로 상징되는 내면세계, 현실을 벗어나려는 초월의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한직은 아버지/어머니, 학교/가정, 일본어/조선어, 바깥세상/내면 사이에서 부침하는 자신을 반성하는 매개로써 조선어를 택했고, 부정적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순결한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 시를 쓴 것으로 보인다.

III. ‘온실’속의 시 쓰기와 자아 보존

이진호는 화려한 친일의 경력으로 일제 식민지 시대에도 일본인 못지않게 대접을 받는 고위 관료로 지냈다. 이한직 역시 그러한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귀족적으로 윤택하게 자랐다. 문제는 유복한 삶의 환경이 부친의 친일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그는 아버지가 제공하는 물리적 삶의 환경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못했다. 그 세계에 동화한 채 아무런 반성 없이 지낼 수도 없었다. 때문에 그는 실제 현실에서는 아버지에게 물리적으로 기대고 있었지만 심리적으로는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 방편으로 택한 것이 시쓰기였다. 이한직은 시쓰기를 통해 아버지가 상징하는 식민지 현실로부터 자발적으로 소외되는 방식을 택한다. 시인의 이러한 심리적 부채감은 아래 시에서 “북극권”에서 떨고 있는 “유배자”의 형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맘마다 流竄의 皇帝처럼
깨어진 勳章의 破片을
주위모으는 하얀 손, 손,
파리한 내 손

— 「북극권」, 《문장》, 1939.5. 부분

위 시의 화자는 북위 66°33' 이북의 추운 북극권에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는 자신을 “流竄의 皇帝”라 상상한다. 조상의 그늘에 가려 무기력하게 지내는 자신의 처지를

14) 田中明, 「弔辭」, 『李漢稷詩集』(文理社, 1976), 91-92쪽.

15) 정지용, 「選後記」, 《문장》, 1939.5, 153쪽.

를 반성하던 화자는 자신을 “훈장의 파편”을 “주워 모으는 하얀 손”으로 형상화한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한 개의 실루엣”과 같은 모호한 상태로도 나타난다.

나는 砂丘 위에서
風葬이 되는구나

날마다 밤마다
나는 한 개의 실루엣으로
피로워했다

깨어진 울겐이
杳然한 搖籃의 노래를
부른다, 귀의 탓인지

葬送譜도 없이
나는 砂丘 위에서
風葬이 되는구나

— 「풍장」, 《문장》, 1939.5. 부분

화자는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불안한 모래 언덕 위에 누워 자신의 존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비바람에 마모되어 가는 죽음을 택함으로써 화자는 존재의 불안으로 고통 받는 현실에서 벗어나려 한다. 조상의 영향권 안에 있는 한 화자는 그림자가 없는 불완전한 존재로 지낼 수밖에 없다. 하여 화자는 현실과의 연관 관계를 끊는 방편으로 현재의 자신을 만든 조상들과 거리를 두는 방법을 택한다.

그 구비진 채 위에서
나는 그림자를 잃다
濕地에는 슬픈 說話의 발자국을 남긴 채
쉐퍼어드인양 재빨리 걷다

함박눈처럼 날아 오는 思念을

하나 하나 아름다이 結晶시키고

또는 산뜻한 Ozone을 헤치며 헤치며
함부로 휘파람도 날리다

喪服 입은 白樺林 사이사이로
넋쫓, 내어다 보이는
꽃이파리 못지 않게 純爛한 山결이여

童話 같이 어지러이 덧덮인 山脈에서
이제 나는 祖上의 모습을 그려보며
그들의 骨格을 생각하다

午前 열 한時—
南風은 유달리 미끄러워
산마루턱에는 눈부시게
五月 햇살이 빛나다

이젠 庸劣한
市井의 거짓에 겁내지 않으리

한 봉지 하얀 散藥을 훌뿌린 다음
곰곰히 빛나는 흙을 더듬어보다
이제부터는 憂鬱한 생활에 매이지 않으리라고

나는 소라처럼 安堵하다

— 「羈旅抄」, 《문장》, 1939.6.

어지러이 덧덮인 산맥에서 조상의 모습을 본 화자는 산마루턱에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여행객으로 자신을 형상화한다. 시정 사람들은 화자의 조상을 통해 화자를 판단하기에 화자는 우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습지에 찍힌 자신의 발자국

조차 조상들의 흔적인 것 같아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걸음을 재촉한다. 그리고 화자는 나무들 사이사이로 내어다 보이는 “순란한 살결”인 흙을 보며, 온전한 자아로 다시 태어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다. “상복 입은 백화림 사이사이로” 보이는 흙은 조상의 죽음과 화자의 소생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화자는 조상의 유골을 태운 하얀 가루를 흙 위에 뿌리고 곰곰이 빛나는 흙을 더듬어 보는 행위를 통해 조상들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의식을 진행한다. 조상의 상징적인 죽음을 통해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부정적 현실과의 연관관계만 끊을 수 있다면 죽음마저 즐기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참대를 꺾어
지팽이 짚고

짚풀을 삼어
짚세기 신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슬프고 고요한
길손이 되오리

늪새가 날면
황나비도 날오리

生活도 葛藤도
그리고 算術도
다 잊어버리고

白樺를 깎아
墓標를 삼고

凍原에 피어오르는
한 떨기 아름다운

百合꽃이 되오리

늪새가 불면—

— 「늪새가 불면」, 《문장》, 1940.3. 부분

화자는 참대로 만든 지팽이를 짚고, 짚풀로 삼은 짚세기를 신고 황천길을 떠나 는 길손의 이미지로 자신을 형상화한다.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 이미지를 통해 생활, 산술, 갈등으로 부대끼는 현실을 벗어나 갈등이 없는 곳에서 고고하게 살고 싶은 욕망을 드러낸다. 화자가 지향하는 고고한 삶의 모습은 “凍原에 피어오르는/ 한 떨기 아름다운/ 百合꽃”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식민지 조선에서 친일관료의 아들로 지내는 시인 자신의 삶이 생활과 산술과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적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화자의 모습으로, 슬프고 고요한 길손과 동원에 피어오르는 백합꽃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황나비가 날면 나는 대로 자연과 함께 하는 백합꽃의 형상에서 밝고 가벼운 느낌을 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동원에 피어오르는 백합꽃은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실존적 존재 양태이다. 화자는 세속적인 인간의 삶과는 거리를 둔 채 외롭더라도 고고하게 사는 방식을 지향한다. 문제는 그러한 삶이 “늪새가 불면”이라는 외계의 변화에 의존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실 속으로 깊이 침잠하지 않는 한, 화자는 “슬프고 고요한 길손”마저 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화자는 왜, 줄곧 현실을 떠나려 했을까?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조선 땅에서 이한직은 친일 관료의 자제인 자신만이 예외적으로 현실적 혜택과 물리적 안락함을 누리고 있다는 모순적 상황에 대해 자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인의 인식이 시 속의 화자로 하여금 현실에서 벗어나려 하고 죽음을 지향하게 한 것은 아닐까? 자신이 처한 안락함이 아버지의 친일 행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자로서 겪은 내면의 갈등이 어지러이 덧덮인 조상의 모습으로 단란하지 않은 가정의 모습으로 총체성이 깨진 세계의 모습으로 비루하고 나약한 화자의 모습으로 구체화된 것은 아닐까. 이러한 점에서, 이 시를 “삶에 지친 노년층의 몫”¹⁶⁾이라고 본 이형기의 해석 보다는 “현실과 인식의 모순과 갈등에서 오는 것”¹⁷⁾으로 본 신경림의 해석이 타

16) 이형기, 앞의 논문(1986), 19쪽.

당해 보인다.

이한직의 물리적인 삶의 환경은 풍요롭고 윤택하였다. 그러나 그의 시 속에 나타난 현실은 고립되고 좁고 삭막한, 토대가 불안정한 모래 언덕이었다. 그곳에 있는 화자의 내면 역시 외롭고 쓸쓸하고 피폐하였다. 이한직은 친일 관료인 아버지의 특혜로 인한 제도교육을 거부할 수 없었다. 윤택한 생활환경 속에서 지내는 자신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부정과 자신에 대한 반성 없이 지낼 수도 없었다.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물리적 혜택을 거부하지 못하는 나약함, 심정적으로만 아버지의 세계를 부정하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을 표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선어로 된 시쓰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어머니가 상징하는 온실 속의 시쓰기를 통해, 삶의 주체로 서지 못하는 자신을 부정하면서 나약한 자아를 보존하고 있었다.

IV. 상처받은 삶에 대한 성찰과 부정적 주체

해방이 되던 이듬해에 이한직은 아버지의 죽음을 맞는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자식으로서의 슬픔보다는 친일 행적을 한 아버지를 대하는 역사적 주체로서의 부끄러움이 더 컸던 것이다. 역사적 과오를 안고 생을 연명하는 것보다는 부끄러움과 함께 생을 마감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덜 곤욕스럽다고 생각한 듯하다.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이한직은 현실에 직접 임하는 현실적 주체로 변화한다. 이한직은 1950년 전쟁이 나던 해에 피난지인 부산에서 인촌 김성수의 셋째 딸인 김상현(金相琎)과 결혼을 한다.¹⁷⁾ 당시 인촌 김성수는 이한직이 친일 관료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고 결혼식장에도 가지 않았다고 한다. 때문에 이한직은 피난지 부산에서 그리고 서울로 상경한 후에도 궁핍한 생활을 했다고 전한다. 물리적 삶

17) 신경림, 앞의 글, 96쪽.

18) 인촌 김성수를 친일파로 아는 이들에게는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이다. 동아일보의 창립자이자 고려대학교의 설립자이며 당시 부통령을 역임하고 있던 인촌 김성수는 적어도 자신은 언론과 교육 운동을 통해 조선 사람들에게 민족교육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조선총독부의 학무국장까지 역임한 이진호의 친일 행과과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다.

의 환경은 궁핍했지만, 이한직은 삶의 주체가 되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문단 활동에 참여한다.

그는 전쟁의 와중에서도 문총 구국대의 종군문인으로 공군 소속 창공구락부의 일원으로 종군을 하였으며, 전쟁 직후에도 적극적으로 문단활동¹⁹⁾을 지속하였다. 전쟁 이후 남한 문단이 재편성되고 문단의 조직이 정비되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46년 청년문학가협회 창립준비위원의 한 사람으로 유치환, 서정주, 조지훈, 김동리 등과 함께 민족 진영에서 이한직은 시부, 외국문학부 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1955년에는 시사 종합지 『전망』을 주재하여 발행하였다. 1956년에는 ≪문학예술≫지의 시 추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윤일주, 박희진, 남운철, 박성룡, 박재호, 신경림, 이림, 이황, 인태성, 민재식, 이일, 허만하, 윤수병, 오진서, 민용식, 임종국, 이창대, 김규태를 시인으로 발굴하였다. 이 중 신경림은 3회 허만하, 윤수병, 임종국은 2회 추천을 받았다. 이들의 작품을 추천하면서 이한직은 시천기(詩薦記)를 쓰는데, 시천기를 통해 1950년대 중후반의 시단을 바라보던 이한직의 시의식을 살필 수 있다. 그의 시천기에 주로 나타나는 의견은 모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이한직은 뭉뚱하게 꾸며진 기교나 기술보다는 시적 포에지가 두텁고 친진무구한 소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²⁰⁾ 기존의 정서에 안이하게 의존하는 태도와 이름만 가리면 누구의 시인지 구분할 수 없는 대동소이한 작품을 쓰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추천한 좋은 시는 대부분 시인의 충실한 내면생활에서 집요하게 탐구한 것, 시대와의 과감한 대결을 통해 새로운 시대정신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은 시였다.²¹⁾ 이러한 시 추천 태도가 지나치게 신중하여 답답하다는 여론도 있었으나 이에 대해 이한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반박을 하였다. 첫째, 신인의 작품은 신중하게 고르는 게 옳기 때문에 작품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태도는 옳은 것이며, 오히려 이를 답답하다고 하는 이들이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둘째, ≪문학예술≫지에서 추천받은 작품들의 경향이 유사하다는 데에는 동의는 하지만, 추천작의 경향이 비슷한 것은 선자들의 취향이 동일하기 때문이 아니라 ≪문

19) 권성희, 앞의 논문, 14쪽.

20) 이러한 언급은 이한직이 쓴 「시천기」에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한직, 「시천기」, ≪문학예술≫, 1955.6, 102쪽, 이한직, 「시천기」, ≪문학예술≫, 1955.11, 151쪽, 이한직, 「시천기」, ≪문학예술≫, 1955.12, 141쪽 등.

21) 이한직, 「시천기」, ≪문학예술≫, 1955.12, 141쪽.

학예술》에 투고한 작품들 중 최고의 작품을 선정한 결과일 뿐이라고 답변하였다.²²⁾ 이한직은 다른 이들의 작품을 읽고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형식적 기법보다는 시의 내용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었다. 그는 투고한 작품들을 통해 그 작품에 부족한 것은 무엇이며 빛나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말하는 방식으로 당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 작품의 창작 경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1956년 후반기에 쓴 「시천기」에 단적으로 나타난다.

1956년 11월의 「시천기」에서 이한직은 《문학예술》에 투고한 작품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여성들의 작품도 많아졌으며 투고한 작품의 경향이 다양해져서 《문학예술》지에는 어떠한 경향의 작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오해가 없어진 듯해 반갑다는 의견을 싣는다.²³⁾ 이어서 그는 1950년대 중반기의 시단을 비평하면서 새로운 내용의 시는 도시, 철조망, 포구 등의 어휘가 지닌 감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대의 감상을 초극하여 좀 더 냉엄해 지는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는다.²⁴⁾ 6·25를 계기로 죽음의 공포, 처참한 공핍, 사회적 모순과 같은 혼란을 겪는 사이에 젊은 시인들은 냉정하게 자기를 관조할 틈을 갖지 못했지만, 이들 작품에 나타나는 컴컴한 불안과 회의 속에서도 젊은 시인들이 새로운 인간성을 모색하는 치열한 흔적을 느낄 수 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²⁵⁾ 이처럼 이한직은 《문학예술》지를 중심으로 젊은 시인들을 발굴하며 해방 이후 전성기를 거치며 1960년을 맞이하기까지의 시단에서 새로운 시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름의 모색을 하고 있었다.²⁶⁾ 그렇다면 그가 「시천기」를 쓰면서 젊은 시인들

22) 이한직, 「시천기」, 《문학예술》, 1956.4, 129쪽.

23) 이한직, 「시천기」, 《문학예술》, 1956.12, 175쪽.

24) 이한직, 「시천기」, 《문학예술》, 1956.11, 175쪽.

25) 이한직, 「시천기」, 《문학예술》, 1957.2, 156~157쪽.

26) 이러한 모색은 그가 1957년에 조지훈 등과 한국시인협회를 결성하여 기획간사와 심사위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그는 시선집[『한국시집(상)』(대양출판사, 1952); 『청풍』(해방사령부 정훈감실, 1953)]을 발간하고 외국문학을 소개[『로렌스 연구』; 『세계농민문학명저해설』; 『세계문학명저해설』(문호사, 1953); 『사실주의 문학연구』; 『사랑스런 여인』(청수사, 1955); 『하이네: 회상록』(인문각, 1957)]하였으며 글쓰기 교재와 교과서[『중학생의 작문2』(문화교육출판사, 1957); 『중학생의 작문3』(문화교육출판사, 1957)]도 집필했고, 『현대문장강의』(선진문화사 1965/1958)를 박영준과 만들었으며 대학에서 강의도 하였다. 4·19 때 희생당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를 쓴 것도 이 무렵이었다. 일본에 있을 당시 그는 5·16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한국에 입국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에게 요구한 새로운 시정신은 정작 그의 시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해방 이후 이한직이 쓴 시는 「설구」이다.

첫눈 내리는 밤이었다
假說같이 迂遠한 너의 愛情에는
무엇보다 흰 것이 잘 어울렸는데
에달픈 나의 向日性을 받들어 줄 별은 왜 보이지 않았던가
기우러진 思想은
造花처럼 靨色하려고 하였다
繃帶에 싸인 나의 人生이
너털 웃음을 웃는 것이다

— 「설구」, 《경향신문》, 1947.1. 부분

첫눈이 내리는 밤, 화자는 파이프를 물고 밤거리를 바라보며, 과거에 비추어 현재를 조망하고 현재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자세를 도출한다. 지금까지 화자는 삶의 지향을 찾지 못해 헤매며 상처 받은 삶을 살아왔다. 그러는 사이 너/나, 흰 것/어두운 것, 천상/지상, 이상/현실의 괴리는 점점 벌어졌고 그로 인해 화자의 내면은 깊은 공허로 가득찼다. 자신에 대해 성찰할 틈도 없이 정신없이 흘러보낸 시간 속에서 화자는 자신의 삶 자체를 잃어버린 듯하다. 이러한 삶에 대한 회한은 “繃帶에 싸인 나의 人生이/ 너털 웃음을 웃는” 화자의 자조적 웃음으로 이어진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 밤거리에 서 있는 화자는 마치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막막함마저 느낀다.

視野에서 판데온의 비둘기들이
떼지어 날아가는 것을 나는 본다

裝飾音의 葬列이 모두 지나간 다음
나는 비로소 나의 抒情과 결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레이몽
진정 나 홀로 이 曠野에 서 있어야만 하는가

소리 없는 慟哭과 몸짓 없는 몸부림에 지쳐
나는 하늘 向하여 哄笑하는 버릇을 배웠다

不安한 氣候만이 나의 것이다
새 싹 트고 푸른 잎새 달 期約 없는
虛無의 樹木이 나는 되자

사보텐만이 茂盛할 수 있는 非情의 하늘 아래
自虐하는 두 팔을 안타까이 내밀며 나는 썼다/여지껏 나는 빨쪼아지와 親할
수 없다

— 「聳立」, 『민성』, 1949.3.

화자는 판테온의 비둘기 떼가 날아가고, 장식음이 모두 사라지는 장면을 본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마음에 품었던 서정을 떠나보낸다. 천상의 것들, 현실에 대한 낭만적·환상적 인식을 모두 거두어 버리고, 오로지 지상에서의 삶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한다. 광야와 같이 막막한 현실에서 홀로 서서 버티는 과정이 쉽지 않았음은 “소리 없는 통곡과 몸짓 없는 몸부림에 지”쳤다는 역설적 표현에 나타난다. 화자가 두 팔을 내밀며 선다는 것은, 그 현실에 기꺼이 온몸을 던지며 살겠다는 삶의 태도를 표방한 것이다. 화자는 새 싹이 트거나 푸른 잎새가 날 기약이 없는 비정한 현실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아무런 욕망 없이 버티고자 한다. 사막에서도 생명을 연장하는 선인장 사보텐처럼 말이다. 이러한 의지는 “여지껏 나는 빨쪼아지와 친할 수 없다”는 현재형 서술 어미에 나타난다. “여지껏”이라는 부사는 어떠한 행동이나 일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 온 상태를 뜻하므로 서술어는 과거 시제인 ‘없었다’를 써야 한다. 그러나 화자는 “친할 수 없다”는 현재형 서술어를 통해 과거와의 연속성보다는 자신의 현재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과거에도 부르조아적 삶과 타협하지 않았듯, 앞으로도 현실에 영합하면서 타협하고 살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 현실에 발 딛고 살아야 하는 화자의 주체적인 자기 선언으로 볼 수 있다. 화자가 이렇듯 단호한 자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시인의 내면에 일관되게 지켜온 삶의 자세 즉, 현실에 손쉽게 타협하지 않고 지켜온 정신적 기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르조아적 삶과

타협한 적이 없었기에, 앞으로도 그런 삶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식민지 시기 이한직이 아버지의 그늘 속에서 지내면서도 내면으로는 그런 삶의 방식에 거리를 두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선언이자, 해방 이후 맞게 된 새로운 삶의 환경에 대한 삶의 자세이기도 하다. 그가 삶의 주체로 선다는 것은 부친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경제적 빈곤 상태에 처하게 됨을 뜻한다. 하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에 대해,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 냉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그 모습은 시 속의 화자가 현실을 점점 더 “분명히 분명히” 깨닫는 모습 속에 투영되어 나타난다.

이제는 이미 日光도 降雨도
植物들의 營養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분명히 깨달았단다

近代의 周圍를 휘도는
이 不毛의 길을랑
自虐의 입술을 굳게 다물고
나홀로 가련다

오랜 歲月을 두고
목매어 부르던 이름이어
抒情의 時代는 끝났다
(중략)
그렇다, 나는 진정 너를 잊을 수가 있었단다
오랜 歲月을 두고
목매어 부르던 그대 抒情의 이름이어

— 「未來의 山上으로」, 『문예』, 1950.1

생명체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는 현실에서 화자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나 홀로 가련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오랜 세월 동안 화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서정의 시대는 진작에 끝났음도 알고 있다. 근대적 도시에서는 서정을 생각할 일말의 희망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화자는 “자학의 입술을 굳게 다물고 나홀

로 가”겠다는 다짐을 한다. 욕망으로 가득 찬 근대 도시에서, 화자는 스스로 허무의 수목이 되어 현실의 불모성을 폭로하는 지표가 되고자 한다. 그런데 화자가 현실의 불모성을 인식하게 되고, 허무의 자세로 그 현실을 견디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면에 “서정”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다, 나는 진정 너를 잊을 수가 있었다”는 문장은 화자가 서정을 잊을 수 없었음을 반어적으로 드러낸다. 화자는 “오랜 세월을 두고” 서정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자아와 세계의 회감을 불가능하게 하는, 서정이 부재한 불모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있어야 할 서정이 없는 비극적 현실에 대한 통찰이 화자가 오랜 세월 동안 목메어 부르는 그대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자에게 서정은 부정적인 근대의 모습, 현실의 불모성을 감지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잣대였던 것이다. 때문에 화자가 서정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한, 거짓이 난무하는 현실은 더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나 이제 좀 疲倦하여
靑春 그 어느 길목에 우두커니 섰노라

나와는 無緣한 것
꽃들이어

너희들 다시 한번 그곳에 마음껏 피어 보려나
거짓의 祈禱와 거짓의 盟誓와
그리고 거짓의 抱擁

이 都市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不吉한 그림자를 거느리고
그래도 나는 또다시 이 길을 걸어야만 할 것인가

이제 巴야흐로 終點에 다다르려고 하는 나의 旅程이어
病든 豫感이
少年처럼 가슴 설레어 기다리는 것은
아아 이러한 虛構의 봄이 아니라

너의 발자국소리가 아니라
그것은 바람차게 나부끼는
나의 검은 終焉의 旗발이어라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대신
나 이제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리

— 「또다시 虛構의 봄이」, 『백민』, 1950.3.

현실에서 화자는 피곤함을 느낀다. 자연의 이치, 꽃들이 피고 지는 순환의 원리조차 화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와도 화자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자가 있는 현실은 여전히 거짓의 기도와 거짓의 맹서와 거짓의 포옹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화자는 병든 과실처럼 시들어 뇌장이 썩어가고 있다. 이때 화자는 근대적 도시의 문제를 폭로하는 부정적 주체가 되고자 한다. 그 모습은 근대의 종언을 향해 나부끼는 깃발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극단적인 허무의 힘을 바탕으로 화자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 촉수를 드러낸다. 그가 인식한 불모의 도시는 “바즈카포가 진동하고/ 共產主義者들이 낫설은 外國말로 喊聲을 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손쉽게” 사람들이 “쓰러져 죽”는²⁷⁾ 전쟁터로 구체화된다. 전쟁으로 상징되는 근대적 이기의 극단을 겪고 난 후, 화자는 모든 것의 생명을 앗아가는 현실에 다시 한 번 좌절한다.

역역히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늦은 봄
꽃 그늘에
매양 즐고 있는
나의 腦漿이
病든 果實처럼
지금 徐徐히
썩어가고 있는 것을

27) 「동양의 산」, 『시문학』, 3호(1951.6) 전시판.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
 오래지 않아 나에게 있을
 그 發作은
 나근한 봄벌에
 일제히 꽃을 가지는
 顯花植物처럼 제발 그렇게
 아름답거나 하였으며
 詩人 하나가
 기어코 미치고야 마는
 病든 봄
 「라일락」의 꽃그늘
 毒한 꽃내음

— 「어느 病든 봄에」, 《경향신문》, 1950.2.

화자는 해마다 현실에 뿌리를 박고 열심히 살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끝내 삼림은 이루지도 못했다. 잘못된 역사와 문제적 현실에 대한 격한 분노의 기억은 지녔으나 그마저도 현실의 폭력성에 시달려 다 잊었다. 이제는 미소마저 잊어버렸다. 폭력 앞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화자는 깊은 허무를 느낀다. 이러한 현실은 일상을 사는 생활인으로,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서 버틸 수 있게 하던 근본적인 힘마저 소진시킨다. 현실은 부정정신과 허무의지로 버티려던 “시인 하나”를 “기어코 미치”게 만든다. 이런 현실에서는 차라리 독한 꽃내음을 내며 소멸하는 게 나은지도 모른다. 거짓으로 찾아온 봄에 화려한 현화식물로 피어 독한 꽃내음을 내며 사라진다면, 적어도 전쟁으로 일그러진 근대적 도시의 불모성은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라도.

V. 결론

식민지 시대, 이한직은 친일 관료인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면서 최소한의 자아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방편으로 택한 것이 조선어로 시를 쓰는

것이였다. 시 쓰기를 통해 가상의 상황을 구축하여 그 안에서 심미적 안정을 찾았다. 「낙타」, 「풍장」, 「기려초」, 「뉘새가 불면」과 같은 시는 여전히 감각적이고 신선하게 읽힌다. 이를 김우창은 서정적 모더니즘이라 했다. 이러한 시를 쓰는 데 작용한 것은 언어에 대한 감각도 아니고 이미지에 대한 친착도 아니며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아니었다. 해방 이후, 이한직은 조상과 가계와 식민지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 생명을 시들게 하는 전쟁 후의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 부정의지를 바탕으로 시를 써 왔다. 그의 시에서 깊은 고뇌와 반성과 좌절이 침전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서정’을 가능케 하고 ‘시인’이 존재할 수 있는 현실을 꿈꾸었던 그의 간절한 바람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참고 문헌

《문장》, 문장사, 1939~1941.

- 강영미, 「이한직론: 현실인식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43호, 2005.12, 45~76쪽.
 권성희, 「이한직 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1~98쪽.
 김경수, 「격변기 정체성 탐구의 시적 여정: 이한직론」, 『시학과 언어학』 5, 2003.6, 255~310쪽.
 김용직, 「<문장>과 문장과의 의식 성향 고찰」, 『선청어문』 23집, 서울대 국교과, 1995, 731~751쪽.
 김우창, 「서정적 모더니즘의 경과」, 『지상의 척도』, 서울: 민음사, 1977, 227~242쪽.
 김이상, 「<문장>지의 시 연구(1)」, 『어문학교육』 5집, 한국어문교육학회, 1982, 43~79쪽.
 김춘수, 「황해, 또는 마드리드의 창부」, 『한국문학』 43호, 1977.5, 304~311쪽.
 레온 에텔/김윤식(옮김), 『작가론』, 서울: 삼영사, 1983.
 신경림, 「청춘과 허무의 시인 이한직」, 《우리교육》 1996.10, 92~99쪽.
 이명찬, 「1940년 전후의 시 정신」, 『한성어문학』 18, 한성대한국어문학회, 1999, 61~77쪽.
 이명화, 「이진호: 일제 식민통치에 앞장선 친일관료의 전형」, 반민족문제연구소(편), 『친일파 99인 (1)』, 서울: 돌베개, 1993, 202~207쪽.
 이봉범, 『잡지 <문장>의 성격과 위상』, 『반교어문연구』 22집, 반교어문학회, 2007, 105~137쪽.
 이송원, 「<문장>지에 나타난 고향의식 시고」, 『국어교육』 36호, 한국어교육학회, 1980, 159~174쪽.
 이한직, 『李漢稷詩集』, 東京: 昭森社, 1979.

이한직, 『李漢稷詩集』, 서울: 文理社, 1976.

이형기, 「이한직 연구」. 『논문집』 7집, 부산산업대 1986, 11~34쪽.

이형기, 「이한직론: 어느 귀족주의자의 자각적 파멸」. 《월간문학》 1986.8, 241~269쪽.

이혜영(외),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I): 일제 시대의 학교 교육』,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7.

국문 요약

이한직은 식민지 시대, 친일 관료의 아들로 태어나 일본어로 된 제도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조선어로 시를 써서 일제 말기 조선어 문학의 보루 역할을 한 《문장》에 발표하였다. 그에게 일본어란, 아버지로 상징되는 식민현실, 외부 세계, 일제의 통치 논리를 뜻하고 조선어는 어머니로 상징되는 조선 땅, 내면세계, 현실에 대한 부정정신을 뜻하였다. 이한직은 조선어로 시를 씀으로써, 친일 관료인 아버지가 만든 온실 속에서 생활하며 내면으로는 또 다른 세상을 꿈꾸는 자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다. 해방 후 이한직은 아버지 이진호의 죽음을 계기로, 자아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 근대적 주체로 성장하기 시작한다. 내면에 칩거하던 나약한 자아가 해방 이후에는 현실의 불모성에 쉽게 타협하지 않는 근대적 주체로 변화하였다. 이한직은 조상과 가계와 식민지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 생명을 시들게 하는 전쟁 후의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 부정의지를 바탕으로 시를 써 왔다. 그의 시에서 깊은 고뇌와 반성과 좌절이 침전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서정’을 가능케 하고 ‘시인’이 존재할 수 있는 현실을 꿈꾸었던 그의 간절한 바람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 투고일 : 2008. 4. 10.

● 심사완료일 : 2008. 5. 29.

● 주제어(keyword) : 이한직(Lee Hanjik), 문장(Moonjang), 조선어(Korean language), 부정정신(negative spirit), 근대적 주체(the modernized subject).